

미국의 9/11 애도 작업에 관한 고찰 : 9/11추모관 건립과 테러와의 전쟁을 중심으로

오 봉 희
(경남대학교)

I. 자식의 죽음, 어머니의 애도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온 죽음에게 아이를 빼앗긴 한 어머니가 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죽음의 뒤를 쫓고자 하지만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때 긴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의 형상을 한 밤이 다가와 그녀가 아이에게 불러주었던 모든 노래들을 자기에게 불러주면 죽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울면서 밤에게 노래를 불러준다. 밤이 일러준 곳으로 가니 이번에는 가시덤불이 자신을 가슴에 품어 따뜻하게 해주면 죽음의 행방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어머니는 가시에 찢려 피를 흘리면서도 앙상한 가시덤불이 잎을 내고 꽃을 피울 때까지 꼭 안아준다. 그 다음에는 호수를 만나 두 눈을 내주고 죽음이 생명의 꽃과 나무를 기르는 온실로 가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조수인 반백의 여자 노인을 만나 아름다운 긴 검은 머리카락을 내주고 난 다음에야 빼앗긴 아이의 생명의 꽃을 찾는 데 성공한다. 죽음은 그녀가 자신의 정원에, 그것도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자신은 신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면서 자식을 돌려달라는 그녀의 청을 거절

한다. 그녀가 자식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원에 있는 모든 꽃들을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죽음은 “다른 어머니를 당신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호수에게 내주었던 두 눈을 돌려주며 직접 보라고 말하면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과 불행과 비애가 가득한 삶을 보여준다. 둘 중 하나는 그녀가 자식을 되찾아 갈 경우 그 아이가 살게 될 미래라고 말해주면서도 어느 것이 그녀의 자식의 미래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아이를 되살리고 싶은 소망과 아이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어머니는 결국 “제 기도가 당신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항상 당신의 뜻이 최선일 테니까요”라고 절규하며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맡긴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가슴에 묻는다.

여기 아이를 잃은 또 한 명의 어머니가 있다. 이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서 아이를 되살려낼 방법을 찾아다닌다.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녀를 미쳤다고 여기지만, 한 노인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부처님에게 가보라고 일러준다. 그녀의 청을 들은 부처님은 가족의 일원과 사별한 적이 없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죽은 아이를 되살려주겠다고 말한다. 그 어머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지만 조건에 맞는 겨자씨를 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가족을 잃은 적이 없는 집이 단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녀는 가족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상실의 슬픔에 대해 듣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녀는 모든 가족이 죽음과 상실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태어나는 존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그녀로 하여금 비로소 죽은 아이를 묻을 수 있게 해준다.

첫 번째 것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의 「한 어머니의 이야기」(“The Story of a Mother”)이고, 두 번째 것은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키사 고타미(Kisa Gotami)에 관한 이야기다.¹⁾ 두 이야기 모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 죽은 아이를 되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을 들려주고 있

1)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는 여러 유형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기본 내용은 동일하다.

다. 그러나 애도의 관점에서 보면 두 이야기는 아주 다르다. 안테르센의 작품에서 되살려낸 아이가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으며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깨달음은 외부에서 강제되는 측면이 강한 반면에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으며 삶의 자연스런 일부라는 깨달음은 내부에서 생겨난다. 전자에서 아이를 잃은 상실의 슬픔은 어머니의 개인적 경험으로만 그려지는 반면에 후자에서 상실의 슬픔은 키사 고타미의 개인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겨자씨를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험으로 그려진다. 각 이야기의 초반부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되살리고자 애쓴다는 것은 그녀가 죽음으로 인한 아이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아이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안테르센의 작품에서 마지막에 손을 비틀며 절규하고 고개를 가슴에 묻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녀가 아이의 생사를 신의 뜻에 맡기면서도 여전히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는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암시한다. “죽음이 미지의 땅으로 그녀의 아이를 데려갔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수궁보다는 죽음에게 아이를 내줄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절망을 담고 있다. 반면에 키사 고타미는 다른 사람들이 겪은 상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슬픔을 그들의 슬픔에 비춰보고 그들과 자신이 상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고는 아이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스스로 이겨낸다.²⁾ 죽은 아이를 묻는 키사 고타미의 모습은 그녀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애도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사한 두 상황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그 차이는 다음의 두 요소에서 기인한다. 첫째,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상실을 받아들이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배려해주는가? 둘째, 상실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경험으로, 따라서 공감대를 통한 상호주체적 관계의 토대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가? 이 두 사항은 안테르센의 작품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반면에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에서는 잘 충족된다. 비슷한 상황에 있지만 서로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두 이야기는 애도란 사랑 대상을 상실한 개인의 사적 차원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공적

2) 이런 소통을 데리언 리더(Darian Leader)의 용어로 표현하면 “애도들 간의 대화”(a dialogue of mournings)이다(78).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애도를 통해서 사랑 대상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감정적 에너지와 애착을 철회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리비도가 투여된 대상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통찰처럼(244), 사랑 대상에게 투여한 감정을 철회하고 애착을 끊어내는 과정은 어렵다. 특히 애도를 사랑 대상을 잃은 사람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릴 때 그 과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반면에 애도가 혼자만 짊어진 일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도 또한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처리하는 과정은 훨씬 수월해진다(Leader 75). 애도 대상이 서로 같은가 다른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슬픔과 고통의 공감이다.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개인이 겪는 상실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공동체 차원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 덕분에 하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인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의 죽음으로 애도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를 잃은 상실의 슬픔과 고통이 공동체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도 의식에서 일시적으로 남녀의 복장 코드를 뒤바꾸거나 사회적 위계질서를 뒤집는 일들이 의식의 일부로 행해져왔는데, 이런 수행적 행위들은 “집단의 한 구성원의 소멸이 상징적 차원에 깊이 작용했고, 그래서 집단의 관습과 관례 전체가 교란되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Leader 106). 이렇게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이 결합됨으로써 애도는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의 죽음까지 아우르게 된다.

애도를 논할 때 흔히 그 준거 텍스트로 거론되곤 하는 「애도와 우울증」(“Mourning and Melancholia”)에서 프로이트는 애도를 상실된 사랑 대상과 그 대상의 부재를 슬퍼하는 애도자 사이의 이차 관계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문제로 설명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애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랑 대상에게서 리비도를 회수함으로써 그 대상과의 애착을 끊어내어 상실의 슬픔을 처리하는 작업으로 애도의 주체와 대상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인류학은 모든 인간 사회가 공적인 애도 의식과 관습을 만들고

행해왔음을 보여준다. 학자들에 따르면 “서양에서 공적인 애도 의식이 쇠퇴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동안 일어난 대량 학살과 관련이 있다”(Leader 72). 대량 학살이 낳은 무수히 많은 죽음 앞에서 개별적인 죽음을 일일이 애도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애도는 처음부터 사적인 것으로 치부된 것이 아니라 “애도가 공동체의 삶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개인의 문제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Leader 73). 현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표출하는 공간은 사적 영역으로 제한되고 공적 영역에서 과도한 눈물을 보이거나 울부짖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진다.³⁾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테러와의 전쟁’이란 미명 하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그 여파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건, 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 국내외의 재난들은 애도를 공동체 차원에서 재사유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가 들려주듯이 지극히 개인적인 상실을 극복하는 데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과 공적 차원의 애도가 필요한데 하물며 공동체 전체에 정신적 외상을 가하는 크고 작은 재난들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재난 상황을 수습하고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이 겪는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위무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가의 여부가 재난이 초래한 외상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도의 공적 차원을 확립하는 일은 더더욱 시급하다.

본 논문은 9/11테러 직후에 미국에서 진행된 애도 작업을 9/11추모관 건립과 테러와의 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9/11추모관 건립 과정은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재난에 노출된 공동체가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공동체의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면, 테러와의 전쟁은 상실에 대

3)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재클린 케네디(Jackline Kennedy)는 눈물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모습은 “내면화하여 드러나지 않는 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애도를 백년 후퇴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Leader 73). 이 점에 비춰보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터뜨린 눈물은 애도의 측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처하는 국가주의의 전형적인 양상을 잘 보여준다. 각각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 상실에 대처하는 이 두 가지 행위는 언뜻 보기에 서로 상반된 애도의 방식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내보이는 한계는 서로 유사하다. 9/11추모관 건립 과정에서 수행된 애도 작업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고찰하고, 그 다음에는 추모관 건립에서 나타난 한계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면서 애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 사례로 테러와의 전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9/11추모관 건립과 테러와의 전쟁과는 다른 방식의 애도 사례를 통해서 애도란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드는 추동력 혹은 새로운 실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할 것이다.

II. 미국의 9/11 애도 작업

“우리의 세계는 영원히 변해버렸다”(Our world was changed forever). “세계는 결코 똑같지 않을 것이다”(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사건 이전과 이후 사이의 근본적 단절을 뜻하는 이 말들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날로 기록된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뒤덮었던 충격과 공포를 집약적으로 나타낸 표현들이다. 빌딩으로 돌진하는 비행기, 치솟는 불덩어리,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초고층 빌딩, 추락하여 폭발하는 비행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욱한 연기더미, 거대 예산을 들여 만든 재난 영화에서나 볼직한 장면들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와 현실이 되어버린 듯한 광경 앞에서 미국인들은 그들이 알던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절감했다. 이 말들은 또한 9/11이 초래한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나타낸 표현들이기도 한다. 사실, 모든 죽음이 그 죽음으로 인해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에게서는 세상이 끝났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9/11이 초래한 상실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국가의 이상화된 이미지”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Moglen 119). 수천 명에 달하는 희생자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유형의 사랑

대상을 잃었다면, 희생자들 중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 없는 미국인들은 적어도 무적의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이미지, 전쟁이니 테러니 하는 것들은 다른 곳에서나 일어나는 뉴스거리일 뿐 ‘여기’ 미국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잃었다. 이 집단적 상실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하나는 9/11 추모관 건립처럼 민관이 결합하여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행정부가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다.

1. “부재 되비추기”: 9/11 추모관 건립

1973년에 완공된 이후 30여년 동안 세계무역센터는 뉴욕시의 아이콘이자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아이콘, 번영과 성공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1993년 2월 26일에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트럭을 이용한 테러 공격이 발생하여 6명이 희생되었지만 쌍둥이 건물 자체는 건재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건물의 안정성과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 및 보강 조치가 취해졌고 비상상태를 대비한 구조적, 기술적 개선책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실행되는 와중에도 세계무역센터가, 그것도 쌍둥이 건물 두 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했다. 뉴욕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던 쌍둥이 건물은 9/11 이후 뉴욕의 시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겪어본 적이 전혀 없다”는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W. Giuliani)의 말처럼 쌍둥이 건물이 있었던 빈자리는 건물의 물리적 부재 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상적 사건이 가져온 상실을 비가시적 형태로 증언한다(Blais & Rasic 56). 9/11은 너무나 충격적인 방식과 어마어마한 크기로 미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그것이 초래한 부재와 상실은 사랑 대상을 잃은 개인들의 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애도되어야 했다.

공동체가 애도를 수행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공식적인 애도 의식을 수행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가시적인 형태의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9/11이 초래한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애도하려는 노력이 9/11 추모관

건립으로 가시화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리더가 지적하고 있듯이, 비극적 사건의 현장이 추모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비극과 상실의 순간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남겨져서는 안 되고” 무언가 변화가 가해져야 한다 (105). 그러나 ‘어떤 변화를 어떻게 가할 것인가’는 결코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세계무역센터 자리처럼 애도의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함께 묻혀 있는 곳으로서 “신성한 땅”이 된 동시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부동산으로서 “상업적 용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Bernstein 254). 2001년 10월에 세계무역센터 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로어맨해튼개발공사(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가 직면한 난제 중 하나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노력과 뉴욕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의 일부분으로서 경제적 효용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중재하는 문제였다. 로어맨해튼개발공사가 재건 사업의 기본 설계안으로 제시한 안들이 공청회에서⁴⁾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예증한다. 그런데 모든 안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보다 로어맨해튼개발공사가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기본 설계안을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9/11 추모관 및 박물관 건립 과정에 유가족들을 주요 주체로 포함시켰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노력들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어루만지고 애도를 그들의 사적인 문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들과 함께 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때문이다.

400개가 넘는 출품작 중에서 세계무역센터 재건을 위한 기본 설계안으로 최종 선정된 것은 스튜디오 다니엘 리베스킨트(Studio Daniel Libeskind)의 “기억 토대”(Memory Foundations)였다. 이 설계안에는 쌍둥이 빌딩이 각각 서 있던 두 공간이 추모관 자리로 비워져있었다. 그 공간들은 테러 행위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 “비극적 상실을 통해서 신성해진 땅”으로 추모관

4) 이 공청회는 2002년 7월 맨해튼에 있는 제이콥 재비즈 컨벤션 센터(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에서 열렸는데, 현장에 참석한 인원은 총 5000명이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800명이 더 참석했다. 이 밖에도 로어맨해튼개발공사는 수백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Blais & Rasic 109).

을 세울 자리로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했다(Blais & Rasic 111). 기본 설계안의 경우처럼 추모관 설계안도 공모를 했는데, 총 5000개가 넘는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그 중에서 8편을 선별하여 먼저 유가족들에게 선보인 다음 일반에게 공개되었는데,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의 “부재 되비추기”(Reflecting Absence)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 설계안의 핵심은 녹색의 배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두 개의 커다란 빈 공간이었다. 쌍둥이 건물의 기단부였던 곳을 빈 공간으로 남겨둠으로써 사랑하는 가족이 묻힌 무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그 주변에 녹색의 나무들을 심어 조경함으로써 “생명력과 회복력”을 동시에 담아냈다(Blais & Rasic 141).

프로이트의 애도 논의에 따르면 사랑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애도자가 인식하고 검증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이트가 “현실 검증”(reality-testing)이라 명명한 이 작업이 완료되어야 애도자는 잃어버린 사랑 대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낼 수 있다. 즉 프로이트에 따르면 애도는 종결을 지향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어떤 현저한 변화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나간다”(252).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인 애도는 애도자로 하여금 현실에 재적응하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9/11 이후 미국의 건강 산업과 공공 토론이 “개인의 복지와 미국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도 이런 문맥에서이다(Guisan 564). 그런데 프로이트의 주장대로 애도는 어떤 중요한 변화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종결되는 걸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세상이 더 이상 이전과 똑같지 않다고 느끼던 애도자의 상실감이 어떤 의미 있는 변화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고려하면 아라드의 설계안이 9/11이 초래한 상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증하고 있는 쌍둥이 건물의 기단부를 비어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점은 부재 혹은 상실이란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서 망각되거나 과거의 것으로 ‘안전하게’ 처리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일부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실은

털어버려야 하는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안고 가야 하는 대상일 수 있다. 리더의 말대로, “중요한 것은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99).

“부채 되비추기”라는 이름 역시 함의하는 바가 크다. ‘reflect’라는 영어동사는 ‘반사하다’, ‘비추다’라는 물리적인 되비추기 기능과 ‘심사숙고하다’, ‘반성하다’라는 사유의 되비추기 행위를 모두 뜻한다. 추모관은 사각형의 못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못의 수면은 주변 풍경을 그대로 비춰준다. 못의 중앙에는 텅빈 구멍이 있고 사면에서 물이 흘러내려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못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난간에는 1993년 폭탄테러와 2001년 9/11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희생자의 이름들은 손으로 해당 부분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새겨져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그들의 죽음이 낳은 부채와 상실을 잘 반영한다. 밤에는 난간 내부에 설치된 빛과 거울로 구성된 시스템이 작동하여 각 희생자의 이름을 밝게 비춰준다. 그리고 희생자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난간은 “허리 높이에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서” 추모객이 이름을 직접 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읽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절을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Blais & Rasic 186). 이름을 읽는 행위와 애도하는 행위가 같아진다. 그러나 그 이름들로 불렸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도려내는 방식으로 새겨진 이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부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대체되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부채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요청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요청에 답하는 한 가지 방식은 “자신이 겪은 상실에 의해 자신이 어찌면 영원히 바뀔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일 것이다(버틀러 47). 다시 말해서, 9/11이 초래한 상실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만 바뀌었다가 다시 그 이전의 삶과 질서로 되돌아가기보다는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영원히 변형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일 것이다.

9/11추모관의 난간에 이름을 새긴 것은 희생자들을 통계 수치가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존재했고 저마다의 삶을 산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름을 새기는 작업은 수월하지 않았다.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소방관과 경찰관 등의 최초 대응자들을 다른 희생자들과 구별할 것인가’

의 문제와) ‘이름을 어떤 순서대로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이었다. 최초 대응자들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 희생되었기 때문에 특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다른 유가족들은 일반 시민 희생자들 중에서도 영웅적인 행위를 수행한 사람들이 많으며 최초 대응자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희생자들의 죽음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같은 사건에서 희생되었다고 해도 어떤 죽음들은 더 애도할 만하고 어떤 죽음들은 덜 애도할 만하다고 하여 죽음의 가치에 차등을 두는 ‘애도의 서열화’와 결부된 논쟁이었다. 지젝의 말처럼, 모든 개인의 죽음은 “절대적이고 비교 불가한데” 죽음들 사이에 서열을 세우는 것은 비윤리적이다(64). 세계무역센터 재건 사업을 이끌고 있던 로우맨해튼개발공사의 이사진은 차등을 두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개별적인 영웅적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데 가장 좋은 장소는 추모관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추모관에서 “상실의 위계질서를 세우려는 시도는 각 희생자들에게 똑같이 닥친 비극의 절대적 크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모든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톰 존슨(Tom Johnson)의 말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추모관의 기능을 잘 전달하고 있다(Blais & Rasic 162).

이름 배열 방식에 관해서도 논쟁이 치열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알파벳 순서대로 새기는 안을 지지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가족 혹은 회사 별로 이름을 분류하여 새기기를 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세계무역센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만 새기고 펜타곤과 펜실베이니아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은 다른 곳에 새기기를 원했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자의 이름과 나란히 그 사람이 속했던 회사의 이름도 같이 새기자는 안을 지지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경우 단체 인명록처럼 보일 것이라고 반대했다(Blais & Rasic 162-63). 유가족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의견 교환 끝에 추모관 설계자인 아라드는 “지리적 및 가족의 인연 관계, 동료들 사이의 유대 관계, 유가족들의 특별한 소망에 따라서 이름을 배열하는” 방안을 택함으로써 이름 배치에 설득력 있는 의미를 부여했다(Blais & Rasic 166). 최초 대응자들의 이

5) 희생자의 15% 정도가 소방관과 경찰관 등의 구조대원들이었다고 한다.

름에는 그들의 소속을 알려주는 표제어를 붙임으로써 그들을 다른 희생자들과 구분하는 동시에 추모관의 일부로 통합했다. 그리고 각 이름은 일일이 손으로 직접 새겨 넣어졌다. 이런 방식의 이름 배열은 공적인 애도의 장소인 추모관에 친밀한 관계들이 갖는 사적인 의미가 기입되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재건을 위한 기본 설계안과 9/11추모관 설계안을 선정하는 과정과 추모관의 구조 자체, 이름 배열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애도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명확하다. 첫째, 9/11이 발생한 직후 바로 재건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상실의 슬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우리는 추모관에 대해 생각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지 않다. 추모관에 무엇이 갖춰져야 할지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한 어머니의 말은 성급하게 추모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유가족들을 위한 것인지, 진정한 애도를 위한 것인지를 묻게 한다.⁶⁾ 더구나 애도의 시간이란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상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초래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생각해보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급한 추모관 건립은 문제적이다. 둘째, 9/11추모관 건립을 포함한 세계무역센터 재건 사업의 이면에는 국가주의, 미국의 자국중심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추모관의 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추모관에 대한 언급에서 애국심은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곤 했다. 예를 들어 『기억의 장소』의 서문에서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R. Bloomberg)는 9/11의 잿더미에서 생겨난 것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우리의 공통된 인간애에 대한 믿음”과 함께 “우리나라의 자유와 이상에 대한 자부심”을 들고 있다(14). 발문에서 조 다니엘스(Joe Daniels)는 9/11 이후에 느꼈던 것으로 “사랑”과 “연민”과 함께 “애국심”을 들고 있다.⁷⁾ 이렇게 9/11을

6) 2011년에 나온 9/11추모관의 공식 자료집인 『기억의 장소』(*A Place of Remembrance*)는 한 공청회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추모관 건립 계획이 . . . 너무 빨리 시작되어서, 감정들이 극도로 격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타는 듯한 슬픔이 모든 토론을 채우고 있었다”(118, 필자 강조). 이 구절은 성급한 추모관 건립 계획이 애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 9/11 이후 국기를 구입하는 미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많은 국가제조업

국가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과 결부시키는 것은 미국 시민이 아니었던 316 명의 희생자들을 망각하는 행위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한 애도의 실패 혹은 불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테러와의 전쟁이다.

2. 부시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9/11이 일어난 당일 저녁,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 대량 살인 행위는 우리나라를 겁주어 혼란에 빠뜨리고 움츠러들게 만들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합니다.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역사상 최악의 공격을 받은 나라의 수장으로서 동요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가 여전히 견재함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서 할 만한 말인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9/11이 세계를—적어도 미국인들이 알던 세계를—영원히 바꿔버렸다’는 말에 담겨진 근본적 단절에 대한 인식, 이 인식에서 나올 수 있는 성찰, 사건의 발생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 그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은 찾아볼 수 없다. 공격받은 것은 “우리의 동료 시민들, 우리의 삶의 방식, 바로 우리의 자유”라는 연설의 첫 대목과 “미국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우리가 자유와 기회를 가장 밝게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이라는 대목은 9/11에 대한 부시의 인식이 얼마나 문제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부시는 이 연설에서 “테러리즘에 대항한 전쟁”(the war against terrorism)이란 표현을 쓰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과 그 우방국 및 동맹국들이 단결할 것임을 밝힌다.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 가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해 애태우며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

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이 일시적으로 동남 정도였다”고 한다 (Blais & Rasic 101).

- 8)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the War on Terror)이 9/11 이후 부시행정부가 알카에다(al-Qaeda)와 이슬람권의 다른 군사조직들을 대상으로 중동에서 행한 군사행동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로 쓰였다.

에게, 부시는 더 많은 죽음을 가져올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애도를 금지하는 명령과 다를 바가 없다. 테러와의 전쟁 선언은 유가족들과 그들이 겪는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언급하는 부시의 말들이 의미 없는 텅빈 기표들의 행진에 불과하고 더 많은 상실과 고통을 장려하는 수사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애도는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어떤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실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들은 실패했고 미국은 강력하며 그들을 응징할 것이라는 취지의 부시의 연설은 쌍둥이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실과 난공불락의 안전한 국가인 미국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혹은 자각하지 않으려는 행위다. 마찬가지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이 실제로 다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우리들[미국인들] 자신과 세상 사람들에게—입증해보이려는 헛된 시도이다”(Moglen 122). 9/11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며 분노를 퍼부을 대상을 찾고 있던 사람들, 9/11이 초래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부시에게 기꺼이 동조했다.⁹⁾ 부시는 한순간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끄는 강력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미국인들은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¹⁰⁾ “9/11은 또 하나의 진주만 기습 공격이

9) 『벌거벗은 군중』(*The Naked Crowd*)에서 제프리 로젠(Jeffrey Rosen)은 공포 때문에 대중이 몰이성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그가 각각 “나체기계”(Naked Machine)와 “얼룩기계”(Blob Machine)라고 명명한 보안검색장치에 관한 대중들의 반응에서 읽어낸다. 9/11 이후에 미국의 어느 공항에 보안용으로 나체기계와 시뮬레이션으로 설치된다. 이 기계는 승객의 옷 속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탐지할 뿐만 아니라 그 승객의 해부학적인 이미지까지 정확히 그려내기 때문에 보안은 확보되는 대신에 승객의 사생활이나 인권은 침해당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얼룩기계는 숨겨진 물건의 이미지만을 보여주기에 승객의 나체 이미지는 성별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희미해진다. 로젠은 승객들에게 두 기계 중 어느 기계에 의해 보안검색을 받고 싶은지를 묻는 선호도 조사를 했다. 로젠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염려되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겠다고 말했다. . . . 그들은 안전한 상태 그 자체보다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기만의 감정 상태에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웰치 24, 재인용).

10) 9/11 직후 부시의 지지율은 90%까지 치솟았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고치의 대통령 지지율이다. 그러나 임기 종료 직전 시비에스 뉴스(CBS News)와 뉴욕

었고¹¹⁾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성공적으로 점령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비슷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견해가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유포되었고(Guisan 569), 부시와 부시행정부, 미국에 대한 비판은 테러리스트들과 공모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은 테러의 희생자인 자신들과 친구들로 이루어진 ‘우리’와 가해자들과 그 동조자들로 구성된 ‘그들’로 이분되었다. 적대적인 이항 대립 구조에 토대를 두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애도는 문젯거리조차 되지 못한 채 뒷전으로 떠밀렸다. 그리고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는 더 공고해졌다.

9/11이 초래한 죽음과 상실을 애도하는 문제는 경제적 차원에서도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9/11 직후에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줄리아니는 뉴욕시민들에게 물건도 사러 가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뭔가 하라고, “밖으로 나가세요, 갇혔다고 느끼지 마세요”라고 조언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조언을 줄리아니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줄리아니의 조언에는 “(9/11테러) 공격이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다(Blais & Rasic 79). 자본주의 경제는 최대 목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서 늘 가동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큰 손상을 입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부 관리들과 업계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경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애도는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집단적 상실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진정성 있는 애도를 수행해야 할 때 장·재계의 지도자들은 9/11이 낳은 상실과 상처를 제대로 직

타임즈(New York Time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시의 지지율은 2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시가 재임했던 8년 동안의 지지율 변동과 다른 대통령들의 지지율과의 비교 내용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6일자 시비에스 뉴스의 「부시의 최종 지지율: 22%」(“Bush's Final Approving Rate: 22 Perc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조할 것.

- 11) 수전 손택은 9/11과 진주만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런 비교는 싸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159).

시하는 대신 서둘러 통합할 것을 요청했다. 그 통합의 방식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또 다른 폭력이었고, 이 폭력은 “현대 미국의 경우처럼 소비주의적, 군사적 이해관계에 몰들어 있는 공적 영역은 공적 애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Redfield 14).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역설적이게도 부시행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시는 미국이 해를 입지 않았고 맞수가 없는 강대국이라고 역설했지만 즉각적인 폭력적 대응은 오히려 미국이 큰 손상을 입었고 다른 나라들처럼 공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예증했다. 왜냐하면 폭력에 더 많은 희생을 낳는 폭력인 전쟁으로 대응하는 것은 9/11에서 훼손된 “외국이 촉발한 폭력으로부터 삶이 안전한” 무적의 국가라는 미국의 이미지,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의 나라라는 실체 없는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폭력적으로 재건하려는 극단적인 시도이기 때문이다(버틀러 71). 부시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자국을 선제공격한 적들에 맞서서 무력을 행사하는 정당한 자기방위 행동으로 규정했다. 전쟁을 먼저 시작한 쪽은 ‘그들’이고 미국은 추악한 악의 세력에 맞서서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지목한 ‘그들’은 알-카에다로 대변되는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이다. 그러나 테러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에서 “(알-카에다, 아프가니스탄, 아라크 등으로 지목되는) 적의 얼굴과 이름들은 일시적이고, ‘테러리즘’ 혹은 ‘테러’라는 추상적인 것을 제외한 어떤 대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은 무한하고 끝이 없다”(Redfield 56).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지적하고 있듯이, 테러리즘 혹은 테러라는 용어는 국가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정치적 실체들이 저지른 폭력의 형태들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확립된 국가들의 폭력적인 반응은 비준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뿐이다(128).

9월 11일을 기념하는 방식에서도 미국의 국가주의, 자국중심주의가 드러난다. 1987년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레이건(Ronald W. Reagan)이 9월 11일을 “9-1-1 비상전화번호의 날”(9-1-1 Emergency Telephone Number Day)로 정한 후 2001년까지 이 날은 “안전의식을 장려하는” 9-1-1의 날로 기념되었다. 그러나 9/11 이후 이 기념일은 폐지되었고, 2001년 10월에 미

국 의회는 이 날을 “기도와 기억 국경일”(National Day of Prayer and Remembrance)로 제정했고, 2002년 9월 4일에는 부시대통령에 의해 “애국자의 날”(Patriot Day)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dfield 17). 이 명칭은 9/11을 철저하게 미국[우리] 대 반미세력[적] 간의 대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9/11이 초래된 복잡한 배경에 대한 심문을 미리 차단해버리고 9/11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부조리한 죽음을 거짓 의미로 덧씌워버린다. 희생자들은 그냥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조리하게 죽은 것으로 그들의 죽음은 미국에 대한 애국심과는 무관하다. 9월 11일을 애국자의 날로 기념하는 것은 비미국인 희생자들을 배제하는 행위이며, 9/11 희생자들이 부조리하게 죽었다는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량의 부조리한 죽음을 야기한 폭력의 논리가 계속 작동하도록 놔두는 행위다.¹²⁾ 필요한 것은 편을 가르고 거짓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배경을 거리를 두고 숙고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일”일 것이다(Žižek 68).

III. 함께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넘어 평화로

그렇다면 바람직한 공적 애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상실의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주면서도 그들의 애도를 사적인 것으로만 놔두지 않고 공동체 차원에서 끌어안음으로써 그들의 상실을

12) 『기억·서사』에서 오카 마리는 걸프전 당시 미국의 “정밀 조준”(pin-point) 공격 때 대피소로 피했다가 그 곳이 폭격당하는 바람에 죽은 한 아이의 어머니의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다. 이 어머니는 그때 희생된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폭격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된 그 대피소에서 안내원으로 일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미국과 부시, 연합군, 유엔을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낸다. 그 내용은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이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낸 ‘악의 제국 미국’이라는 서사였다. 오카 마리는 후세인정권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 온 자식의 부조리한 죽음에 ‘의미’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심정을 몇 번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비판한다(112). 오카 마리는 유대인 질멸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사건의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한 것일지라도, 거기에서 거짓된 의미를 충전시키는 것은 그와 같은 부조리를 발생하도록 하는 폭력의 근원도 기만 속에서 지속적으로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105).

공동체 차원에 등록하고 공감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주체적인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적 애도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가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에 침해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으면서도 공적 차원을 유지하는 애도는 또 어떻게 가능할까? 9/11처럼 이례적인 집단적 상실을 초래한 폭력적 사건에 직면하여 공포와 불안, 분노, 안전에 대한 강한 욕망에 압도당하지 않고 사건의 배경을 묻고 그런 폭력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의 9/11 애도작업에 대해서 세스 모글렌(Seth Moglen)은 “애도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적절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9/11을 저지른 10여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이 물론 타당하지만 (미국) 정부와 그 정책들에게 분노의 일부를 쏟아내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한다(123). 그러나 이런 식의 양비론은 테러 행위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감싸거나 묵과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노의 감정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유의미한 애도를 수행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실을 초래한 폭력 자체를 따져 묻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가려 분노와 비탄의 대상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함께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9/11과 테러와의 전쟁처럼 폭력에 대한 반응이 또 다른 폭력에 대한 욕망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길은 폭력에 대한 욕망 자체에 비폭력적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다.¹³⁾ 이것이 바로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의 부조리한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일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애도는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다.

버틀러는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더욱 예리한 느낌”이 필요한데, 애도의 능력이 없다면 바로 이 느낌을 잃게 된다고 말한다(20). 이 삶에 대한 예리한 느낌은 나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모르는 타자들에게 의존

13) 이 문장은 버틀러가 레비나스를 설명하면서 쓴 다음 문장의 틀을 활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타자의 취약성에 경도된 첫 번째 충동이 살인에 대한 욕망이라면 윤리적 명령은 다름 아닌 그런 첫 번째 충동에 반격을 가하는 것이다”(189).

하고 있다는 깨달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익명의 타자들에게는 근본적인 의존성”은 나의 의지로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버틀러 12). 미국의 9/11 애도 작업(의 실패)에서 드러나는 한계들은 국가주의가 잘 예증하듯이 나의 삶이 타자의 삶과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근본적 의존성에 대한 인식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인식의 실패이고, 이 실패로 인해 9/11 애도 작업에서 상실의 슬픔에 대한 애도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었던 것이다. 9/11 추모관 건립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안 중 하나는 최초 대응자들의 희생과 일반 시민들의 희생을 구별할 것인가와 관련된 애도의 서열화 논쟁이었다. 그러나 9/11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인이 아닌 희생자와 관련된 애도의 서열화는 논쟁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애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자가 인간이고,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테러와의 전쟁에서 희생된 이슬람교도들과 아랍인들은 미국인 희생자들과 같은 인간이란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고, 그들의 삶 역시 미국인들의 삶처럼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도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시민들과 군인들의 죽음은 애도할 만한 것이었던 반면에, 그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죽음은 애도되지 못했다. 애도는 서열화되어 차등 할당되었다. 이런 식의 애도의 서열화는 미국인의 삶과 비미국인의 삶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미국인의 죽음과 비미국인의 죽음은 똑같이 끔찍한 것임을 인정할 때에만 피할 수 있다.

유의미한 애도는 우리는 타자에게 노출되어 있고 타자는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으며, 서로의 삶이 서로의 삶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취약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폭력에 비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 가족들”(September Eleventh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 이하 평화로운 내일)은 이런 애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에 속한다.¹⁴⁾ 미국인

14)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평화로운 내일에 대한 관련 정보는 모두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임을 밝혀둔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부시행정부의 폭력적 대응을 지지할 때 소수의 9/11 희생자 유가족들은 “비폭력적이고 분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이 소수의 유가족들로 이루어진 평화로운 내일은 2002년 2월에 “화해를 위한 협력”(th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의 기획 중 하나로 조직되었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전쟁은 평화로운 내일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에는 비열한 도구다”(Wars are poor chisels for carving out peaceful tomorrows)의 한 구절을 따서 단체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로운 내일은 비폭력을 지향한다. 다음에 인용한 강령은 이 단체가 추모관을 건립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애도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화로운 미래는 우리의 슬픔을 평화를 위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연합한 9/11 희생자 유가족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우리는 비폭력적인 정의의 추구 방안들과 활동들을 개발하고 옹호함으로써 전쟁과 테러리즘에 의해 야기된 폭력의 순환을 끊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과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Peaceful Tomorrows is an organization founded by family members of those killed on September 11th who have united to turn our grief into action for peace. By developing and advocating nonviolent options and actions in the pursuit of justice, we hope to break the cycles of violence engendered by war and terrorism. Acknowledging our common experience with all people affected by violence throughout the world, we work to create a safer and more peaceful world for everyone.

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평화로운 내일은 상실의 슬픔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행동의 동력으로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의존성과 공감에 근거한 연대감,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감정으로 재전유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의 주요 공격 대상

이었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포함하여 르완다, 팔레스타인, 북아일랜드, 일본 등 세계 곳곳에 있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평화와 비폭력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9/11 추모관이 미국인들의 죽음에 국한된 애도의 장소로 한정되고 테러와의 전쟁이 ‘여기’ 미국의 안전만을 위해 수행된 것인 반면에, 평화로운 내일은 모든 폭력의 모든 희생자들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평화로운 내일은 상실의 경험과 그 상실에 대한 애도를 종결을 지향하는 일시적 행위나 상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봉합의 기제가 아니라 유의미한 변화를 위한 추동력으로 만들어져서 대안적 애도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사랑 대상의 상실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충격을 준다. ‘세상의 끝’이란 충격은 이제는 없는 사랑 대상이 살았던 삶,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했던 하나의 세계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 나의 삶과 세상도 뿌리째 뒤흔들림을 의미한다. 애도는 이 충격 속에서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견디고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애도가 사랑 대상을 잃은 사람의 사적 차원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공적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상실의 슬픔과 고통에 노출된 구성원 개인과 함께 애도를 수행하는 공동체는 친족이나 마을, 직장 같은 협의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 전체나 국가 같은 광의의 공동체일 수도 있다. 전 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9/11 테러 공격과 테러와의 전쟁의 경우처럼 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 다른 지역에 직접 영향을 주기 마련인 오늘날의 세계에서 애도의 공동체는 지구 전체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9/11 애도 작업이 예증하듯이 공동체의 크기가 커질수록 공적 애도를 수행하는 능력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직접적인 관계망 바깥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은 나의 존재가 미지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고 여기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저기 다른 곳에서의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가

사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게다가 ‘나만 잘 살면 되지’ 혹은 ‘여기만 안전하면 되지’ 같은 이기주의나 자국중심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는 근본적인 상호적 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공적 애도는 이런 난관들을 뚫고서 서로에 대한 근본적 의존성을 인식하고 상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미지의 사람들과도 상호주체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9/11 같은 재난이 초래한 상실의 슬픔을 진정으로 유의미하게 애도하는 길은 “이런 일은 **여기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일은 **어디에 서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Žižek 61, 62, 원저자 강조). 그리고 이 깨달음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윤리적 요청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상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마이클 웰치, 『9-11의 희생양: 테러와의 전쟁에서 증오범죄와 국가범죄』. 박진우 옮김. 서울: 갈무리, 2011.
- 수전 손택, 『문학은 자유다』. 홍한별 옮김. 서울: 이후, 2007.
- 오카 마리, 『기억·서사』. 김병구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04.
-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양효실 옮김.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2.
- ANDERSEN, Hans Christian, "The Story of a Mother." 29 Nov. 2014. <<http://hca.gilead.org.il/sandhill.html>>
- BERNSTEIN, Richard and the Staff of The New York Times, *Out of Blue: The Story of September 11, 2001 from Jihad to Ground Zero*. New York: Times Books, 2002.
- BLAIS, Allison and Lynn Rasic, *A Place of Remembrance: Official Book of the*

-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Washington: National Geographic Society, 2011.
- FREUD, Sigmund,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IV*. Trans.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1973.
- GUISAN, Catherine, "Of September 11, Mourning and Cosmopolitan Politics." *Constellations* 16.4 (2009): 563-78.
- LEADER, Darian, *The New Black: Mourning, Melancholia and Depression*. Minneapolis: Graywolf Press, 2008.
- Mission Statements*,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and Museum. 4 Dec. 2014. <<http://www.911memorial.org/mission-statements-0>>
- MOGLEN, Seth, "Mourning and Progressive Politics After 9/11."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Psychoanalytic Studies* 3.2 (2006): 118-25.
- Our Mission*, September Eleventh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 5 Dec. 2014. <<http://peacefultomorrow.org/about-us/>>
- REDFIELD, Marc, *The Rhetoric of Terror: Reflections on 9/11 and the War on Terror*. New York: Fordham UP, 2009.
- ŽIŽEK, Slavoj.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Five Essays on September 11 and Related Dates*. London: Verso, 2012.
- September Eleventh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 5 Dec. 2014. <<http://peacefultomorrow.org/>>
- Text of Bush's Address*. CNN.com/U.S. 2001 Cable News Network LP, LLLP. 5 Dec. 2014. <<http://edition.cnn.com/2001/US/09/11/bush.speech.text/>>
- "Bush's Final Approval Rating: 22 Percent." 20 Mar. 2015. <<http://www.cbsnews.com/news/bushs-final-approval-rating-22-percent/>>

❖ ABSTRACT

The Work of Mourning of 9/11 in U. S. A

bonghee OH

This paper explores the work of mourning of 9/11 in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project of building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managed by the 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LMDC) and the War on Terror declared by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in the wake of 9/11.

This paper first looks at the project of building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and considers what was at stake in achieving this project. It also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project. This paper argues that, in spite of the efforts to mourn the victims in significant and meaningful ways, the work of mourning in the memorial project fails at least in two respects. First, the memorial project “began so soon” right after 9/11 that the victims’ families were not given enough time to mourn their loved ones. Second, the project were permeated with American nationalism and patriotism, which made the 316 non-American victims of 9/11 invisible and forgotten. Then, it goes on to examine the War on Terror because the War on Terror epitomized the failure of mourning due to these causes. In his address to the nation delivered on the very day of 9/11, President George W. Bush stated that “America was targeted for the attack because we’re the brightest beacon for freedom and opportunity in the world” and that the terrorists failed to threaten America into chaos. He also stated that America is in “the war against terrorism.” These statements were a futile reassertion of the illusion of American invulnerability and a prohibition of mourning in favor of violent military responses to 9/11. American nationalism also underlies Bush’s official naming of September 11 as “Patriot Day.” The victims were sacrificed because they were at the site when terrorists attacked, which implies that their death had nothing to do with American patriotism. Naming September 11 as Patriot Day was an act of imbuing the absurdity of the victims’ death with a false meaning and an act of forgetting the non-American victims.

The failure of the work of mourning of 9/11 consisted in the inability to recognize human vulnerability and interdependence and the inability to mourn not only

American victims but also non-American victims killed in 9/11 and the War on Terror. A meaningful and significant mourning could be possible when we realize that all human beings are exposed to one another and their lives are interdependent on one another. September Eleventh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 well demonstrated this kind of mourning. When most Americans supported violent retaliations, Peaceful Tomorrows made pleas for nonviolent responses to 9/11. Turning their grief into action for peace, its members work “to create a safer and more peaceful world for everyone,” not only for Americans. Their effort to mourn in meaningful and nonviolent ways delivers the message that a disaster like 9/11 should not happen anywhere.

Key Words

애도, 9/11 테러 공격, 국립 9/11 추모관, 테러와의 전쟁, 타자에 대한 근본적 의존성
mourning, 9/11 terrorist attacks,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War on Terror,
fundamental dependence on others

논문접수일: 2015년 02월 03일

심사완료일: 2015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16일